

## 개화기 남녀윤리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전 미 경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근대로 이행하는 첫 분절점인 개화기에 변화된 남녀윤리의식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개항과 더불어 구미 열강의 문물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새롭게 형성된 서구적 잣대는 익숙했던 일상을 낯설게 조망하도록 강요하였다. 엘리트 지배계급은 '계몽'이란 이름아래 조선의 관습, 제도, 윤리의식 등을 재배치하려 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당시의 당면과제였던 '문명개화'·'부국강병' 앞에서 당위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개화기에 붓물처럼 분출하고 있는 계몽담론을 통하여 당대의 남녀윤리의식의 실상과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개화기 대표적인 계몽담론의 창구라 할 수 있는 신문과 신소설의 담론분석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대의 남녀윤리의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 연구가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곧 가족 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라는 각각의 지위에 따른 윤리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당위적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는 남녀윤리의식의 '계보학적 탐색'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개화기의 남녀관계는 남존여비적 규범에 의해 규정 지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상에 대한 비난이 강도 높게 전개되었다. 특히 내외법(內外法)은 성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규범으로 매도되는 가운데 내외법 타파는 당대의 시대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내외법 타파는 남녀동등의 윤리의식 안에서 그 당위성이 논의되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여성의 근대 교육기관에의 편입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에서도 기능적인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인으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의 부여는 기존의 유교적 여성윤리에 반하는 것이었다. 개화기 담론은 여성교육의 가장 큰 이점을 유능한 아내와 어머니를 양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교육으로 말미암아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립적으로 '별이'를 할 수 있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당시의 담론은 자립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분자'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과중한 역할부여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남녀동등의 서구적 잣대와 정절과 부덕의 유교적 잣대는 동시에 여성에게 강요되었고, 이것은 윤리의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조선이 처한 위기감의 고조는 남성들이 가정 밖 사회에서 구국을 위한 행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 요망되었다. 미래의 동량으로서의 청년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담론은 특히 남성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영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